

① 혁신금융사업자의 '규제개선 요청제' 도입

-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해당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가 규제를 개선*해 왔으나,

* 그동안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39건 관련 68개 규제 중 13개 규제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었으며, 23개 규제에 대해서는 '21.2분기까지 정비 착수 예정

- 현행 금융혁신법 상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.

- 이번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.

②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구체화

-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*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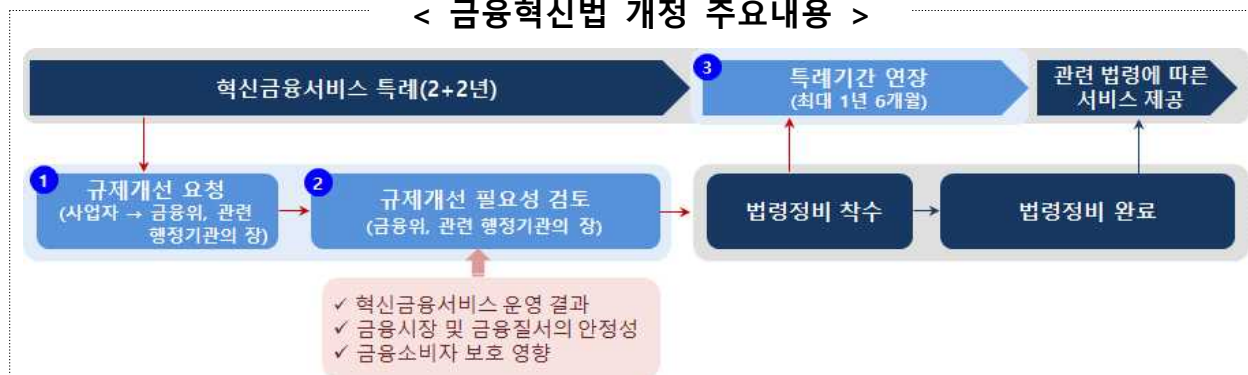
*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 검토 → 해당 규제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비 착수(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)

③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, 최대 1년6개월간 '특례기간 연장'

- 금융관련법령의 정비 결정시,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·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- 이 경우,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(6개월+각 6개월씩 2회 연장)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< 금융혁신법 개정 주요내용 >



☐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* 다만, 별표 「금융관계법률」의 개정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롭게 제정·시행되는 법에 따른 특례요청 신규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

☐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□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시행(19.4.1일)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'금융규제 샌드박스' 제도를 운영 중

- **(내용)** 동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* 되면 인가,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·면제

* (심사요건) 서비스 혁신성, 소비자 편익, 사업계획 구체성·타당성 등

- **(운영절차)** (i)수요조사 접수 → (ii)컨설팅 → (iii)정식신청 접수 → (iv)실무검토 → (v)심사(소위/혁신위) → (vi)금융위 의결순 진행
- **(예산지원)** 혁신적 아이디어·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·사업화 할 수 있도록 비용(인건비, 소프트웨어 비용 등) 지원(기업당 최대 1.2억원)

□ '19.4.1일 이후 19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, 이중 7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

- 29개 핀테크·스타트업이 총 5,857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('20.12월말 기준)

■ **(사례)** "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"을 운영중인 핀다, 핀셋, 팀링크는 서비스 출시와 함께 각각 45억원, 37억원, 3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

-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대출이자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

■ **(사례)** 핀다의 "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"(총대출 25,716건, 4,561억원)을 통해 우대금리가 적용된 대출 4,800건(1,010억원)을 실행해 이자 13억원 절감('19.10.~'20.12.)

-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가능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 제고

■ **(사례)** 회사원 B씨는 은퇴하신 부모님과의 해외여행에서 "On-Off 해외여행자 보험"(농협손해보험·레이니스트, '19.6월)을 추천받아 이용하였으며, 이후 부모님 단독 여행시에도 클릭 한번만으로 간편하게 여행자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됨

- 중소기업,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

■ **(사례)** 삼성생명의 "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단체보험"을 통해 1,444개 사업장(4,035명)이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산재 등에 대비('20.4.~20.12.)